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A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Collection Management State in School Libraries

김 성 준(Sung-Jun Kim)*

이 병 기(Byeong-Ki Lee)**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1. 장서관리 현황
III. 연구방법	2. 이용현황
1. 조사방법 및 대상	3. 장서관리 체계
2. 조사내용	V.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5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지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계의 3개 영역에 걸친 총 12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현황에서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 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등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입수자료의 주제별 비율은 문학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 주제로 사회과학과 역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현황에서 학교급별 대출현황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는 자료는 전체 장서의 64.6%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관리 체계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자체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 중 2~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장서관리, 운영지원,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장서관리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result of the survey on collection management from 154 school libraries in Korea.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three section: state of collection, state of book use, and collection management system. Results reveal that (1)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have many books for each student compared to the KLA's *School Library Standards*; (2) the component ratio of literature books is the biggest in school library collections; (3) the ratio of library book use is overwhelmingly higher in elementary schools tha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4) 64.6 percent of library books in the sample are never used during 2013-2015; (5) 74 percent of libraries have its own collection management document; (6) Almost all schools compose its own committee for library management, th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s in the communication among school members, collection development and promotion.

Key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collection,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 관촌중학교 사서교사(제1저자):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에서 사서교사로 봉직하던 김성준 박사께서는 2016년 12월 30일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동안 김성준 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고인을 기리고 애석함을 달래는 마음으로 공동 연구논문을 발표합니다.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무국장,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육과정개발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인이 남기신 업적은 학교도서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공주대학교 이병기)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lisdoc@kong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2월 15일 •최초심사: 2017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2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1-42,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3.21]

I. 서론

자료 없는 도서관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장서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근간이자 모든 도서관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의 효과적인 학습과 정보이용은 양질의 학교 도서관 장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양질의 장서’라는 개념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기준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의 속에는 ‘뚜렷한 목적에 따라 계획성 있게 구성된 장서’라는 맥락을 함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장서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체제에는 자료의 선정, 구입, 배가, 점검, 평가, 폐기에 이르는 분명한 절차와 과정이 규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명확한 장서관리 체제에 따라 도서관 목적에 맞는 장서를 계획성 있게 개발해 나가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그 이유는 장서관리가 사서직의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도서관의 경우 일 년 단위로 업무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장서개발 계획은커녕 업무의 연속성조차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혹은 정책적 측면의 한계도 존재한다. 비록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최소 수준의 장서 확보 기준은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과 장서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장서개발의 방향과 정책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전체 연구의 첫 단계로,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과 관리체제를 조사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사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 장서의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의 3개 영역의 12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154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각 학교도서관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장서의 유형별 현황, 주제별 현황, 폐기현황, 대출현황, 미활용 자료 등의 구체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단위학교 도서관 운영의 심의기구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위원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학교도서관운영위원

회의 구체적 운영사례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과 내용을 통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장서현황과 관리체제를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장서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도서관 자료의 선정, 관리, 폐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관련하여, 박은자(2003)는 학교도서관을 경영하는 사서교사가 미디어 전문가로서 학습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그래픽 자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의 유형별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수진(2007)은 초등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 문제점을 장서구성 기준과 장서관리 측면, 장서구입 측면, 장서개발 표준화 도구 측면 그리고 폐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서구성 기준과 관리 측면에서는 도서관에 입수되는 대부분의 자료가 도서자료로 제한적이며, 자료유형에 따라 학교의 여러 공간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장서구입 측면에서는 외부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장서관리 정책이 부족하며, 장서개발을 위한 위원회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탓에 원활한 폐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장덕현과 강은영(2016)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장서개발 과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는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 관리자의 무관심, 잦은 전출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장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서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다수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혜선과 김기영(2016)은 초등학교 도서관의 자료선정 과정에서 사서교사가 경험하는 자기 검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검열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된 장서개발 정책, 소장자료의 폐기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연구와 유사하게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실태를 분석한 대표적 조사에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전국도서관운영평가가 있다. 이 조사에 포함된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련 평가항목은 장서현황, 장서 최신성, 장서구성 적절성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의 3가지이다(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5). 지난 2015년에 실시된 평가결과 중 학교도서관 장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에 참여한 981개교 중 429개교(43.7%)에서 장서의 제적과 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소장 장서의 주제 편향, 구체적으로 문학 편중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참여 학교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학교도 105개교(1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교도서관의 장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자료선정 기준설정, 장서개발 과정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모색, 장서개발에서 사서교사의 역할과 인식 등의 주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실태는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도서관운영평가는 학교도서관 장서와 관련된 평가지표로 학생 1인당 단행본 수, 연속간행물 수, 시청각 자료 수, 최신자료 비율, 제적 및 폐기, 장서구성의 적절성, 자료조직의 적절성의 8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장서의 전체적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지표의 측정방식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문지에 제시된 구간 중 자관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을 수치로 나타내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이 평가에서 학생 1인당 단행본 수는 ① 1~24권, ② 25~29권, ③ 30권 이상 중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 소장 단행본의 책 수와 학생 1인당 단행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5).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조사항목과 45개의 평가문항을 선정하였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도서관의 정보시스템(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출력된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대상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모두 20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이 중에서 154개교의 담당자로부터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

구분		빈도	백분율	계(%)
학교 급	초등학교	53	34.4%	154명(100%)
	중학교	48	31.2%	
	고등학교	53	34.4%	
담당자 유형	사서교사	87	56.5%	154명(100%)
	담당교사	41	26.6%	
	담당교사+사서직원	26	16.9%	
교육경력	1~5년	56	36.4%	154명(100%)
	6~10년	55	35.7%	
	11~15년	34	22.1%	
	16년 이상	9	5.8%	
이용 대상 학생 수	1~300명	19	12.3%	154명(100%)
	301~600명	35	22.7%	
	601~900명	42	27.3%	
	901~1200명	38	24.7%	
	1,201명 이상	20	12.9%	
지역	서울 8명(5.2%), 부산 10명(6.5%), 대구 9명(5.8%), 인천 9명(5.8%), 광주 8명(5.2%), 대전 10(6.5%), 울산 10명(6.5%), 세종 8명(5.2%), 경기 9명(5.8%), 강원 10명(6.5%), 충북 8명(5.2%), 충남 10명(6.5%), 전북 11명(7.1%), 전남 12명(7.8%), 경북 12명(7.8%), 경남 8명(5.2%), 제주 7명(4.5%)		154명(100%)	

설문에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3명(34.4%), 중학교 48명(31.2%), 고등학교 53명(34.4%)이며, 담당자 유형별로는 사서교사 87명(56.5%), 담당교사 41명(26.6%) 그리고 담당교사+사서직원이 26명(16.9%)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용 대상 학생 수가 1~300명인 담당자는 19명(12.3%), 301~600명인 담당자는 35명(22.7%), 601~900명인 담당자는 42명(27.3%), 901~1200명인 담당자는 38명(24.7%), 1,201명 이상인 담당자는 20명(12.9%)으로 나타났다.

2. 조사내용

장서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영역은 크게 장서현황,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표 2>와 같이 각 영역별 4개, 모두 12개의 내용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45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2〉 설문내용

영역	내용(요소)	문항 수
A. 장서현황	1. 단행본(신규소장, 기증, 폐기)	9
	2. 연속간행물(신규소장, 기증, 폐기)	9
	3. 기타자료(비도서, 장학자료, 온라인 콘텐츠 신규소장, 기증, 폐기)	9
	4. 주제별 현황	1
B. 이용현황	5. 교사 대출현황	3
	6. 학생 대출현황	3
	7. 학부모+지역주민 대출현황	3
	8. 미활용자료 현황	1
C. 장서관리 체제	9. 자료구입 절차	1
	10. 장서관리 지침(보유여부, 성문화 유무, 내용요소)	3
	1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방식, 운영횟수)	2
	1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우수사례	1
계		45

설문지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영역 중 장서현황과 이용현황에 포함되는 8개 요소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구: Digital Library System)의 통계기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응답자가 통계 출력물의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둘째, 통계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비교적 최근의 현황을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3년 평균값을 통해 분석결과가 특정 해의 편차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셋째, 장서관리 체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의 자료선정과 구입절차,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학교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장서관리 체제 중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우수사례는 응답자가 경험한 위원회의 실제 사례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여, 질적 분석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장서현황

가. 자료유형 및 증가율 현황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구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정보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자료유형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

서, 장학자료, 기타자료, 온라인 콘텐츠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행본이며, 다음으로 연속간행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자료의 유형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장 자료를 ‘기타자료’로 묶어서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현황을 <표 3>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 3> 자료유형별 소장현황(2015년)

n=154

학교 급	학 교 수	학생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타자료***		학생 1명당 단행본수
		계	학교 평균	계	도서관 평균	계	도서관 평균	중수환산 평균**	계	도서관 평균	
초등학교	53	46,809	883	1,157,267	21,835	2,459	46.4	3.9	15,764	297.4	24.7
중학교	48	26,771	558	743,337	15,486	6,059	126.9	10.5	16,182	337.1	27.8
고등학교	53	44,794	845	868,266	16,382	6,455	121.8	10.1	24,533	462.9	19.4
학교 급 평균				922,957	17,901	4,991	98	8.2	18,826	366	24.0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연속간행물은 입수된 1호를 1책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 중수로 환산하기 위해 모든 연속간행물을 월간(연간 12호 발행)으로 추정하였다.

*** 기타자료는 비도서, 장학, 온라인자료의 합계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로 소장된 전체 단행본 수를 학교 수로 나눈 도서관 평균 단행본 수는 초등학교 21,835책, 중학교 15,486책, 고등학교 16,382책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의 대표적 정보자료인 단행본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많이 소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연속간행물의 중수가 아닌 입수되는 ‘호’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간 잡지 1종을 1년간 구독하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 연속간행물 수는 12건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모든 연속간행물을 월간(매해 12호 발행)으로 추정하여 도서관 평균 연속간행물 중수를 계산하면, 초등학교는 3.9종, 중학교는 10.5종, 고등학교는 10.1종이 된다.

비도서, 장학자료, 온라인콘텐츠를 모두 합한 기타자료의 도서관 평균은 초등학교 297.4건, 중학교 337.1건, 고등학교 463.3건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명’ 기준의 단행본 소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별 전체 단행본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결과, 학생 1명당 초등학교는 24.7권, 중학교는 27.8권, 고등학교는 19.4권의 단행본을 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유형별 현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한 학교도서관 기준(이하 ‘학교도서관 기준’)과 비교하였다.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자료유형을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본 자료수와 연간 증가 자료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도서자료는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0권 이상, 중학교 20권 이상, 고등학교 30권 이상을 소장해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 149).

이 기본 자료수와 조사된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를 비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초등학교가 24.7권, 중학교가 27.8권으로 학교도서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9.4권으로 아직까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 주제별 현황

학교도서관에 입수되는 신규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서가에 배열된다. 분류는 기본적으로 정보자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방법이기 때문에 분류별 통계를 통해 장서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수된 자료의 주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별 입수자료 현황(2013년~2015년)

n=145

학교급	학교 수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자연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소계 (%)
초등학교	52	169	179	40	692	594	195	179	449	2,538	686	5,773
		2.9%	3.1%	0.7%	12.0%	10.3%	3.4%	3.1%	7.8%	44.0%	11.9%	100.0%
중학교	44	219	260	61	587	339	212	435	174	1,869	464	4,620
		4.7%	5.6%	1.3%	12.7%	7.3%	4.6%	9.4%	3.8%	40.5%	10.0%	100.0%
고등학교	49	200	274	51	682	344	217	278	160	1,816	387	4,409
		4.5%	6.2%	1.2%	15.5%	7.8%	4.9%	6.3%	3.6%	41.2%	8.8%	100.0%
학교급 평균		196	238	51	654	426	208	297	261	2,074	512	4,934
		4.1%	5.0%	1.1%	13.4%	8.5%	4.3%	6.3%	5.1%	41.9%	10.2%	100%

전체 154개교에서 회수한 설문지 중 분류별 현황이 누락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로 총 9개이며, 이를 제외한 145개교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4>에서 각 학교 급의 주제별 자료 수는 최근 3년 동안 입수된 자료의 평균을 의미한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최근 3년 동안 52개 학교에서 총류로 분류되어 입수된 자료는 평균 169권이며, 철학은 179권이다.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문학(44.0%), 사회과학(12.0%), 역사(11.9%)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종교(0.7%), 총류(2.9%), 철학(3.1%), 예술(3.1%)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문학(40.5%), 사회과학(12.7%), 역사(10.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1.3%), 언어(3.8%), 기술과학(4.6%)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문학(41.2%), 사회과학(15.5%), 역사(8.8%)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종교(1.2%), 언어(3.6%), 총류(4.5%)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주제별 비율을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기준에 제시된 <표 5>의 구성 비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교도서관 기준의 주제별 구성 비율(%)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그림책	계
초등학교	4	2	2	8	13	8	5	2	25	16	15	100
중학교	5	3	3	10	15	9	7	4	27	17	-	100
고등학교	6	4	3	12	15	9	7	6	25	13	-	100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 150.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모든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의 10개 대주제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기준에 제시된 ‘그림책’의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기준에서 제시한 주제별 비율을 상회하는 주제는 문학, 사회과학, 철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비율 사이의 격차(학교도서관 기준의 비율-입수자료의 비율)가 가장 큰 주제는 문학(기준대비 19%p 부족), 언어(기준 대비 5.8%p 부족), 기술과학(기준대비 4.6%p 초과) 순서로 나타났다. 이 처럼 격차가 큰 분야는 장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입수자료의 주제별 비율을 학교도서관 기준과 비교한 결과, 전체 주제 중에서 문학, 사회과학, 철학, 예술이 학교도서관 기준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두 비율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주제는 문학(기준대비 13.5%p 부족), 자연과학(기준대비 7.7%p 초과), 역사(기준대비 7.0%p 초과) 순서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비교결과, 학교도서관 기준의 비율을 넘는 주제는 문학, 사회과학, 철학의 3개 주제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두 비율 사이의 격차는 문학(기준대비 16.2%p 부족), 자연과학(기준대비 7.2%p 초과), 역사(기준대비 4.2%p 초과)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 이용현황

가. 장서 이용률

학생과 교사의 도서관 자료이용은 주로 대출과 열람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 단순한 열람은 통계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출통계를 중심으로 이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의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대출현황(2013년~2015년)

n=154

학교 급	학교 수	평균 학생 수	평균 교사 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1명당 대출 책 수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초등 학교	53	883	47	도서관 평균	44,439	1,030	2,755	36,294	1,135	2,970	32,908	872	2,473	42.9	21.5	3.1
				1명 평균	50.3	21.9	3.1	41.1	24.1	3.4	37.3	18.6	2.8			
중학 교	48	558	44	도서관 평균	5,778	360	951	5,695	391	880	6,724	402	712	10.9	8.7	1.5
				1명 평균	10.4	8.2	1.7	10.2	8.9	1.6	12.1	9.1	1.3			
고등 학교	53	845	57	도서관 평균	6,836	500	387	7,072	477	444	7,904	442	540	8.6	8.3	0.5
				1명 평균	8.1	8.8	0.5	8.4	8.4	0.5	9.4	7.8	0.6			
학교 급 평균				도서관 평균	19,018	630	1,364	6,354	668	1,431	15,845	572	1,242	20.8	12.9	1.7
				1명 평균	22.9	13.0	1.8	19.9	13.8	1.8	19.6	11.8	1.6			

* 학부모 수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이용자별 대출현황을 3년 평균 이용자 1명당 대출 책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평균 42.9권, 교사가 평균 21.5권을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대출 책 수를 살펴보기 위해 학부모 수를 학생 수와 동일하게 추정된 결과, 학부모는 평균 3.1권을 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3년 평균 학생 10.9권, 교사 8.7권, 학부모 1.5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8.6권, 교사가 8.3권, 학부모 0.5권의 대출량을 보였다. 즉,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도서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장서 회전율

장서 회전율은 소장자료 중 이용자에게 이용되는 자료와 그렇지 않는 자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장서 회전율은 장서의 전체적인 이용 상황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장서 회전율을 파악하기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통계기능 중 ‘미대출 자료목록’을 집계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미대출 자료현황(2013년~2015년)

n=137				
학교급	학교 수	도서관 평균 단행본 수	미대출 자료 수	미대출 자료 비율
초등학교	47	20,638	11,162	54.1%
중학교	43	14,662	11,400	77.8%
고등학교	47	15,931	10,531	66.1%
학교급 평균		17,077	11,031	64.6%

설문에 응답한 총 154개교 중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의 설문지에서 미대출 자료현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37개교의 현황만을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도서관 평균 단행본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장된 단행본의 학교급별 평균을 산출한 것이며, 미대출 자료 수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대출되지 않는 자료 수를 의미한다.

미대출 자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47개교의 최근 3년 도서관 평균 단행본 20,638권 중 11,162권(54.1%)의 자료가, 중학교 43개교의 평균 단행본 14,662권 중 11,400권(77.8%)의 자료가, 고등학교 47개교 평균 단행본 15,931권 중에서 10,531권(66.1%)의 자료가 미대출 자료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의 미대출 자료 비율도 64.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급별 미대출 자료의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전체 장서 중 절반이 넘는 자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았다.

다. 장서 폐기율

도서관에 입수되는 모든 자료는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가치로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모든 자료를 장서로 소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은 소장 자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과정을 거쳐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적하고 폐기해야 한다.

장서 폐기율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폐기자료와 소장자료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매년 장서를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폐기 건 수가 ‘0’으로 나타난 학교를 ‘폐기 미실시 학교’로 구분하여, 우선 장서폐기 실시현황을 <표 8>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8〉 장서폐기 실시현황(2013년~2015년)

학교급	학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초등학교	53	24	29	29	24	34	19	29.0	24.0
		45.3%	54.7%	54.7%	45.3%	64.2%	35.8%	54.7%	45.3%
중학교	48	20	28	23	25	27	21	23.3	24.7
		41.7%	58.3%	47.9%	52.1%	56.3%	43.8%	48.6%	51.4%
고등학교	53	13	40	22	31	20	33	18.3	34.7
		24.5%	75.5%	41.5%	58.5%	37.7%	62.3%	34.6%	65.4%
합계	154	57	97	74	80	81	73	71	83
비율	100%	37.0%	63.0%	48.1%	51.9%	52.6%	47.4%	45.9%	54.1%

n=154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장서폐기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장서폐기 실시학교는 초등학교 중 29개교(54.7%), 중학교 중 23.3개교(48.6%), 고등학교 중 18.3개교(34.6%)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장서폐기 실시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154개교 중 장서폐기 실시학교는 모두 71개교(45.9%)로 약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서폐기 실시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장서폐기 실시 학교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설문에 응답한 전체 154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단행본 폐기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단행본 폐기비율(2013년~2015년)

학교급	학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폐기율 (%)
		평균 폐기 자료 수	평균 소장 자료 수	평균 폐기율 (%)	평균 폐기 자료 수	평균 소장 자료 수	평균 폐기율 (%)	평균 폐기 자료 수	평균 소장 자료 수	평균 폐기율 (%)	
초등학교	53	423	18,699	2.3%	634	19,949	3.2%	922	21,835	4.2%	3.3%
중학교	48	345	13,588	2.5%	684	15,333	4.5%	614	15,486	4.0%	3.7%
고등학교	53	189	15,099	1.3%	383	16,302	2.3%	353	16,382	2.2%	1.9%
학교급 평균		319	15,795	2.0%	567	17,195	3.3%	630	17,901	3.4%	3.0%

n=154

3년간 평균 단행본 폐기율은 초등학교 3.3%, 중학교 3.7%, 고등학교 1.9%이며, 전체 폐기율은 3%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학교 중 장서폐기를 실시하는 학교가 45.9%로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 미실시 학교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표 9〉의 폐기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장서관리 체제

가. 자료수집 절차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자료(도서) 선정·구입 개선방안’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선장과 구입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제시했다. 이 방안에 제시된 표준절차는 크게, ①구입 자료 목록작성, ②학교 홈페이지 목록공개, ③이의신청 절차, ④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⑤자료구입의 5단계이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자료구입 절차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료구입 표준절차 이행현황

n=154

학교급	학교 수	자료구입 단계 수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초등학교	53	0(0%)	6(11.3%)	5(9.4%)	42(79.2%)
중학교	48	1(2.1%)	3(6.3%)	5(10.4%)	39(81.3%)
고등학교	53	1(1.9%)	3(5.7%)	6(11.3%)	43(81.1%)
합계(%)	154(100%)	2(1.3%)	12(7.8%)	16(10.4%)	124(80.5%)

조사에 응답한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5단계 중 ‘자료구입’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표 10>에서 자료구입 단계는 최소 2단계 이상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단계를 모두 준수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 42개교(79.2%), 중학교 중 39개교(81.3%), 고등학교 중 43개교(8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에서 4단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16개교에서 준수하지 못한 나머지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15개교는 3번째 단계인 이의신청을, 1개교는 4번째 단계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3단계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12개 학교에서 누락된 단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학교는 모두 2번째 단계인 홈페이지 목록공개와 3번째 단계인 이의신청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장서관리 정책

단위 학교도서관은 입수될 자료의 선정과정, 운영방식, 평가와 폐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장서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장서가 일관성 있게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0개교(75.5%), 중학교 35개교(72.9%), 고등학교 39개교(73.6%)이며, 전체 154개교 중에서 114개교(74.0%)로 나

〈표 11〉 장서관리 정책서의 보유여부

n=154

학교급	학교 수	미보유(%)	보유(%)
초등학교	53	13(24.5%)	40(75.5%)
중학교	48	13(27.1%)	35(72.9%)
고등학교	53	14(26.4%)	39(73.6%)
계	154	40(26.0%)	114(74.0%)

타났다. 다음으로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한 114개교 중 문서의 공식화 여부를 기준으로 ‘도서관 자체 정책서’와 ‘학교장의 결재를 거친 정책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장서관리 정책서의 공식화 여부

n=114

학교급	학교 수	도서관 자체 정책서(%)	학교장의 결재를 거친 정책서(%)
초등학교	40	5(12.5%)	35(87.5%)
중학교	35	7(20.0%)	28(80.0%)
고등학교	39	11(28.2%)	28(71.8%)
합계	114	23(20.2%)	91(79.8%)

분석결과 초등학교 35개교(87.5%), 중학교 28개교(80.0%), 고등학교 28개교(71.8%)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정책서의 주요 내용에는 ‘포괄적 자료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기준’, ‘선정절차’, ‘폐기기준’, ‘폐기절차’ 등이 포함된다.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한 114개교 중 이러한 주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장서관리 정책서의 반영내용

n=114

학교급	학교 수	장서관리 정책서의 내용				
		1개(%)	2개(%)	3개(%)	4개(%)	5개(%)
초등학교	40	3(7.5%)	7(17.5%)	11(27.5%)	8(20.0%)	11(27.5%)
중학교	35	4(11.4%)	6(17.1%)	3(8.6%)	10(28.6%)	12(34.3%)
고등학교	39	4(10.3%)	3(7.7%)	8(20.5%)	9(23.1%)	15(38.5%)
합계	114	11(9.6%)	16(14.0%)	22(19.3%)	27(23.7%)	38(33.3%)

분석결과 제시한 5개 내용 중에서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27.5%), 중학교 12개교(34.3%), 고등학교 15개교(38.5%)이며, 전체 114개교 중에서 38개교(33.3%)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에서 4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27개교에서 누락된 나머지 1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23개교는 자료유형별 선정기준이, 나머지 4개교는 포괄적 선정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관리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장서점검과 평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1년 중 몇 회의 장서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장서점검 및 평가 실시현황

n=154

학교급	학교 수	1년 중 장서점검 및 평가횟수		
		1회(%)	2회(%)	3회(%)
초등학교	53	15(28.3%)	34(64.2%)	4(7.5%)
중학교	48	15(31.3%)	32(66.7%)	1(2.1%)
고등학교	53	15(28.3%)	34(64.2%)	4(5.8%)
합계	154	45(29.2%)	100(64.9%)	9(5.8%)

분석결과 연간 장서점검과 평가를 연간 3회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7.5%), 중학교 1개교(2.1%), 고등학교 4개교(5.8%)로 나타났다. 2회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4개교(64.2%), 중학교 32개교(66.7%), 고등학교 34개교(64.2%)로 모두 100개교(64.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회만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5개교(28.3%), 중학교 15개교(31.3%), 고등학교 15개교(28.3%)로 나타났다.

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10조에서 학교도서관의 심의기구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1690호). 이 법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15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은 모두 3가지로 첫 번째 문항은 구성여부와 운영방식, 두 번째 문항은 운영횟수, 세 번째 문항은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기술하는 문항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여부와 운영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및 방식

n=154

학교급	학교 수	미구성(%)	독립된 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가 겸임(%)
초등학교	53	1(1.9%)	49(92.5%)	3(5.7%)
중학교	48	0(0.0%)	46(95.8%)	2(4.2%)
고등학교	53	2(3.8%)	49(92.5%)	2(3.8%)
합계(%)	154	3(1.9%)	144(93.5%)	7(4.5%)

분석결과 전체 154개교 중 144개교(93.5%)가 독립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미구성 학교는 모두 3개교(1.9%),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7개교(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n=154

학교급	학교 수	1년 중 운영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초등학교	53	3(5.7%)	4(7.5%)	19(35.8%)	27(50.9%)
중학교	48	2(4.2%)	8(16.7%)	24(50.0%)	14(29.2%)
고등학교	53	4(7.5%)	2(3.8%)	20(37.7%)	27(50.9%)
합계	154	9(5.8%)	14(9.1%)	63(40.9%)	68(44.2%)

분석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3회 이상의 운영횟수를 보인 초등학교는 27개교(50.9%), 중학교는 14개교(29.2%), 고등학교는 27개교(50.9%)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에서 운영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학교는 63개교(40.9%), 3회 이상 개최하는 학교도 68개교(44.2%)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에게 전파하고 싶은 우수한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체 154개 학교 중 31개교에서 간단한 문장, 구체적인 사례, 참고자료의 방식으로 사례를 제출하였다. 응답자가 제출한 모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은 크게 대화와 소통의 장, 장서개발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과 행사의 홍보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종합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사례-대화과 소통의 장으로서 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이용이나 행사에 대한 학부모의 직접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의 독서흥미 변화를 들을 수도 있다. 지역인사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이나 교육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A학교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자료의 수집, 제작,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자료의 폐기와 제작, 학교도서관 행사 운영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해 보다 진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표설정에도 도움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도서관만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로 구성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사전협의와 의견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장서선정을 다각화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을 교사, 학부모, 독서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개선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C학교

“행정실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회의 시에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보수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빠른 처리를 해준다.” -D학교

<표 17>의 사례를 정리하면, 보통 학교도서관 담당자 1명으로 이루어진 고립된 운영환경에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적 대화통로가 마련됨으로써 담당자와 운영위원 사이에, 그리고 넓게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담당자가 공감을 표현하였다.

자료선정과 폐기와 같은 장서개발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사례-장서개발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타 학교와 비슷하게 구입할 자료의 심의, 폐기대상 자료의 검토를 주 기능으로 하며, 중요 사안 발생 시 안건을 심의한다. 예전에 비해 학부모 및 외부위원의 참여로 인해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며, 보다 발전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E학교

“본교 운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인근 학교의 사서교사를 두고 있어 자료선정 및 폐기와 관련된 협의회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도서관원 부모님으로 구성되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에게도 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료구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와준다.” -F학교

“형식적 회의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통해 사서교사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자료를 구입하고 장서를 폐기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업무 처리의 근거를 제시하기 용이하다. 예를 들어 ‘왜 이 만화책을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회의에서 논의된 구입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제시하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한다.” -G학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장서개발 과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의견 중에서 G학교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자료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의견이 크게 어긋나 조율이 힘든 상황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행사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종합하면 <표 19>과 같다.

〈표 19〉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사례-학교도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참여했던 사람이 주변인에게 활동상황 등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기 좀 더 수월해진다.” -H학교

“본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입도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 학교도서관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독학생 및 다독학급 시상이나 도서관 행사 운영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I학교

“도서관 행사 진행시 안전사항과 아이들의 선호도를 함께 의논할 수 있다. 특히,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관리자 및 학교도서관 운영위원과 함께 의논하면 도움이 된다.” -J학교

〈표 19〉에서 I학교처럼 학교도서관운영위원과 공동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시상이나 행사를 함께 계획해 가는 모습, 그리고 H학교와 같이 운영위원이 학교도서관의 홍보위원을 자처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해 주변 사람에게 안내하는 모습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K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사례-시설개선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우수 학교도서관을 운영위원 3명과 함께 탐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과정인 설계용역, 시설확장 등에 대해서 학교의 결재 과정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었다. 우수 도서관 탐방으로 안목이 높아진 운영위원들은 도서관의 비품과 가구의 선정과 구입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K학교

이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전에 운영위원과 우수학교를 함께 탐방하였고, 학교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운영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용이하게 처리되었다. 실제 여러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 중 일부를 위원으로 섭외한다. 이러한 경우 열성적인 운영위원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긍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전국 204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154개교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장서현황,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의 세 영역에 걸친 12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에서 장서현황과 이용현황 영역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통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현황 영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도서관은 평균 21,835권, 중학교도서관은 15,486권, 고등학교도서관은 16,382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 1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기준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4.7권, 중학교는 27.8권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지만, 고등학교는 19.4권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입수자료의 주제별 분석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문학의 비율은 다른 주제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44.0%), 고등학교(41.2%), 중학교(40.5%)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문학 다음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사회과학과 역사 순서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현황에서 학교급별 대출 책 수는 모든 이용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대출 책 수가 나머지 학교의 수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 미 대출 자료의 비율은 중학교(77.8%), 고등학교(66.1%), 초등학교(5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서폐기 현황에서는 조사대상 학교 중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장서폐기를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54.7%), 중학교(48.6%), 고등학교(34.6%) 순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전체 장서 중 폐기된 장서의 비율은 중학교 (3.7%), 초등학교(3.3%), 고등학교(1.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관리 현황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0%)가 장서관리 정책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교(79.8%)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공식적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한 114개교 중에서 38개교(33.3%)는 장서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5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완성도 높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154개교 모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자체적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중 2~3회 정도로 학교도서관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실제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장서개발, 운영지원,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수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량과 관련하여,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은 전문단체의 기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단체의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실제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미 실제 수준이 전문단체의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의 장서수준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단체의 기준은 장서의 양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전문단체의 기준을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학교급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수자료의 41.9% 자료가 문학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서관협회의 기준은 문학의 주제별 비율을 학교급에 따라 25~27%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주제의 편중은 비교적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 중심의 장서편중은 교양과 여가선용 중심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장서개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발전계획,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학교도서관 기준의 주제별 구성 비율만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전체 장서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대출되지 않는 자료의 비율은 전체 평균 64.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료선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자료가 입수되었거나 또는 자료의 구입과 활용이 일관성 있게 계획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자료선정 과정부터 해당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더욱이 이용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적극적인 폐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장서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는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정보시스템은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이 연구처럼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장서현황을 조사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소속 학교도서관의 전체 장서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장서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학교도서관 자료(도서) 선정·구입 개선 방안. 세종: 교육부.
- 김수진. 2007. 초등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단상. 『도서관문화』, 48(3): 44-49.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세종: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박은자. 2003.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를 위한 교수매체 선정 기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7-56.
- 박혜선, 김기영. 2016. 초등학교 도서관의 자료 선정에서 자기 검열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239-262.
- 장덕현, 강은영. 2016. 학교도서관 장서개발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사서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41-259.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 기준』.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Eun-Yeong Kang. 2016.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chool Librarie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eacher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241-259.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2015 The Result of National Evaluation on Library Management*.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im, Su-Jin. 2007.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for Elementary School Libraries," *KLA journal*, 48(3): 44-49.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3. *Book Selection and Purchase for School Librarie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Park, On-Za. 2003.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Instructional Media as

Guidelines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27–56.

Park, Hye-Seon and Gi-Yeong Kang.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elf-Censorship in Selection i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39–262.